

제11회 서울국제빵·과자전 개최 높은 관심으로 관람객, 출품작 크게 늘어



제11회 서울국제빵·과자전(Siba 2003)이 '맛을 소중히! 사람을 소중히!'란 주제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엄마와 함께 예쁜 케이크 만들기'를 비롯해 새롭게 기획된 학술 세미나, 포장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알찬 전시회가 됐다. 또한 처음 선보인 케이크 카페에서는 케이크, 쿠키 등을 판매, 많은 관람객들에게 베이커리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

빵·과자경진대회의 출품작 수는 지난 10회 대회보다 152개가

늘어난 485개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제품의 수준도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Siba 2003의 부대행사의 하나로 개최된 2005년 월드페이스트리컵 한국대표 선발전은 설탕 공예, 초콜릿 공예, 아이스카빙 3부문 각 4명의 선수가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였고 세련된 경기 진행으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Siba 2003의 관람객 수는 사상 초유의 인원으로 약 1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고 일반 관람객도 대거 방문해 부대 행사와 경진 대회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베이커리 관련 원부재료, 기계, 포장 등 72개 업체가 참여한 산업전은 업체별 시식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로 자사 제품을 홍보했다. 이번 Siba 2003에는 일반 관람객의 비중이 높아 포장 업체나 가정용 소형 기계 업체에 관람객의 관심이 많이 쏠린 반면 베이커리 전문 대형 기계업체나 원부재료 업체에는 관람객의 발길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11회 Siba 2003은 제과인파 일반인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베이커리 업계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Siba 2003 빵·과자경진대회 수상자와 수상작은 12월호 Siba 특집에 게재될 예정

(김영주)

강원·경남 지역에 수해 위로 물품 전달 12개 지회지부에 밀가루 200포 지원

(사)대한제과협회가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강원, 경남 지역의 지회 지부에 위로 물품으로 밀가루를 전달했다. 전국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인 이번 수해에서 제과 업계는 경상남도지회의 집계만 9억여원이 넘는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이에 (사)대한제과협회는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썬그레인코리아(대표 이명재)와 함께 밀가루 200포를 마련,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을 우선으로 물품을 지원했다. 전체 지원 물품의 지급은 강릉 지부에 40포, 진해 지부 15포, 통영 20포, 사천 20포, 진주 10포, 마산 30포, 김해 15포, 거제 20포, 밀양 10포, 창원 10포, 부산 10포 등이다.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작은 지원이지만, 회원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로했다.

한편 수재 위로 물품 지급에 함께 한 썬그레인코리아는 캐나다 밀가루의 국내 수입원으로 양질의 캐나다 밀을 국내 보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얼마 전 캐나다 본사 임원과 함께 국내 제과 업계 및 식품 업계를 시찰하고 향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을 타진중에 있다.

(허미경)



〈일본과자전문학교〉 강습회 개최 11월 12, 13일 양일간 빵, 과자 제품 실연

일본과자전문학교가 주최하고, (사)대한제과협회가 후원하는 제과 제빵 강습회가 오는 11월 12~13일까지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에서 열린다.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및 (사)대한제과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맺고 있는 일본과자전문학교는 일본 제과 교육의 명문으로, 좋은 강사진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국내 기술인들이 연수 또는 유학을 통해 진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보다 다양한 국내 기술인들에게 일본 기술의 현주소를 소개하고, 학교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담당 교사진이 직접 한국을 찾아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제과와 제빵으로 나뉘어 이틀간 진행되며, 각각 6개 이상의 제품을 실연할 계획이다.

▷ 문의 : 02-2271-1830

※ 세미나 내용 및 비용은 120쪽 사고 참고

〈허미경〉

인천시지회 제3회 지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7개 지부와 부천 축구팀 초청 대회 결과 부평구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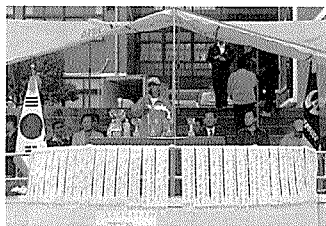
인천시지회(지회장 조영규)가 9월 24일 인천 남동공단 운동장에서 제3회 지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7지부와 부천 축구팀이 초청돼 열린 이번 대회에서 부평구와 남동구가

결승전을 가진 결과, 이기수 지부장이 주장을 맡은 부평구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득점상은 총 6골을 기록한 부평구지부의 조봉익 회원에게 돌아갔으며, 남동구지부의 안승주 회원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축구대회에서는 협회 회원들과 임원들이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으며, 인천시지회의 발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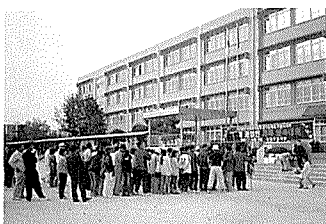
광주시지회 제15회 추계체육대회 개최 회원 가족과 종사간 화합마련, 광산구 지부 종합 우승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이기남)가 지난 10월 5일 '과업인의 날'을 맞이해 광주 무진중학교 운동장에서 제15회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기남 지회장, 황일봉 남구청장을 비롯해 각 지부 및



회원 업주, 기술인, 유관업체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광산구지부가 종합 우승을, 광양지부 축구선수단이 축구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날 체육대회는 운동 경기 등 친목 행사를 통해 회원 가족과 종사간의 유대를 돈독히 다지는 시간이 됐다.

수원시지부 제8회 과업인 가족체육대회 개최 지부 회원 및 협력업체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



수원시지부(지부장 조계중)가 10월 5일 송정초등학교에서 협회 회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과업인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각 구별 회원팀과 업체 등 총 150명이 참가한 이번 체육대회는 수원시지부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수원시 팔달구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행운상으로는 권선구 소재의 회원이 당첨돼 텔레비전을 부상으로 받았다. 수원시지부는 체육대회와 아유회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화합을 다지며 제과업계와 친분을 쌓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의정부시지부 신제품 기술세미나 개최 거제시지부에 수제의연금도 전달



남기찬 지부장

의정부시지부(지부장 남기찬)가 10월 10일 김상업체과기술학원에서 신제품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실연 강사로는 제과기능장 김선기씨가 초청돼 초콜릿 무스, 깨찰빵, 감자호두빵 등 제과점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이날 세미나는 협회 회원 및 학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수강자들 모두 신제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의정부시지부는 올 여름 태풍의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거제시지부에 수제의연금을 전달했다. 협회 임원 24명과 협회에서 준비한 성금 80만원을 10월 14일 거제시지부에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다.